

20만평 일군 영농기술자



이영호 지회장
부산 사하구

이영호 통일회원은 1981년 1월부터 1990년 12월 까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부산 사하구 지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1981년 12월 2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업기술상 경영부문본상(유달영 총재) 수상, 1982년 9월 17일 한국청년회의소 제정 제4회 농어민대상 영농기술부문 대상 수상, 1983년 11월 25일 농수산부 장관표창, 1987년 11월 3일 새마을 훈장 수상, 1993년 11월 10일 농림부 장관표창, 1996년 4월 23일 새마을중앙본부 일하는 보람상(활기찬 마을상), 1998년 8월 14일 석탑산업훈장 수상, 1998년 8월 14일 새농민 종합상(농협중앙회)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 1월 22일 한·일 국제교류대회에서 한국대표로 발표를 하였으며, 1998년 4월 25일 천하의 큰 농사꾼 발행전기(607p)라는 책에 세계적 농민전기에 처음으로 나갔을 정도로 낙동강변 채소단지의 기술고문격인 영농기술자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삼락동 일대 1백여만평의 낙동강 하천부지에선 각종 채소가 연중 끊임없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이곳은 부산시민을 위한 부식공급기지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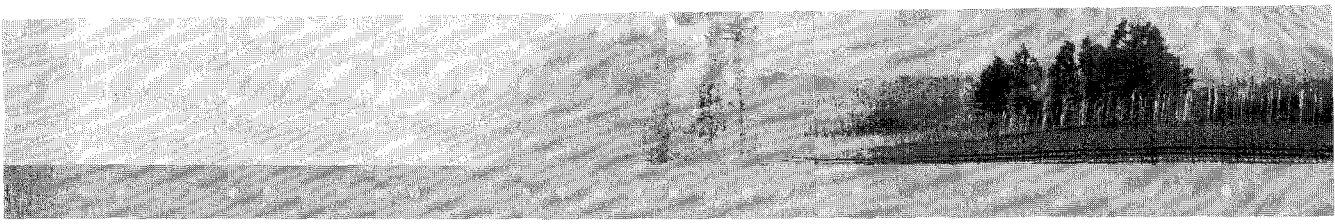
경남 함안 태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마

을청소년회의 전신인 4H회원으로,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농촌자원지도자로 활동해 온 순수한 농군이다. 그가 외도(?)를 한 것은 정확히 1년 창녕에 있는 남지고교를 졸업한 뒤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입대, 1969년에야 제대를 했는데 문득 도시생활이 하고 싶어 부산의 모 금속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얼마 안되는 봉급으로 겨우 생계만 유지해 나가다 보니 앞길이 너무 막연하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꼭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농의 막내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고교를 다닐 때부터 가세가 기운 탓에 막상 다시 농사를 지으려 했을 때는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당시엔 농촌동이었던 하단동에 사글세방을 하나 열고 남의 밭 2백평을 빌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1970년 8월의 일이었죠. 당시 그 일대에선 제가 맨 먼저 비닐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단지역은 부산근교의 유일한 채소단지로 판로가 좋은데다 물과 초자원 등이 풍부해 머리를 써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잘 살 수 있는데도 주민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그는 비닐하우스에다 상추·겨울배추·토마토·수박 등을 재배하고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가꿨다. 동이 트기도 전에 산물을 베어 나르고 땅거미가 질 때까지 비닐하우스를 떠나지 않았다. 이 같이 애쓴 보람이 있어 그는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1972년엔 비록 자신의 땅은 아니었지만 비닐하우스를 1천평으로 늘릴 수 있었다.

또한 그가 묵묵히 일해 잘 사는 방법을 실증해 보이자 인근 농민들도 차츰 비닐하우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단들에도 과학영농이 뿌리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가 앞장 서 갯벌 20만평을 개간한 것은 1975년의 일이다.

李씨가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곳은 1천3백리나 되는 낙동강 물길에 끝나는 하구로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을숙도가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있었다. 그는 이곳에 20여만평이 갈대숲에 뒤덮여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해 4월초 개간에 착수했다.

그동안 모아 둔 돈을 털어 하루 2~3마리의 소를 빌리고, 인부를 사 갈대를 베어내고 갈았다. 모두들 '미친 사람'이라고 수근 거렸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강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이곳에 소금끼까지 많아 그는 이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이 땅을 수없이 갈고 퇴비와 생짚, 석회 등을 많이 넣어 주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멀리서 李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개간을 도와 함께 농사를 짓고 싶다는 사람이 18명이나 모여든 것이다. 개간을 한다 해도 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들에게 1만평씩 떼어주고 자신은 2만평만 갖기로 했다. 마침내 개간 작업을 끝낸 것은 40여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몫 2만평을 무려 17번이나 갈았다.

“그 땅에 시금치·겨울배추·무·수박 등을 심었죠. 첫해엔 염해로 20%가량 감수를 보았습니다만

이듬해 6번을 더 갈았더니 염분이 완전히 없어지더군요. 함께 개간을 했던 사람들도 한동안 농사 잘 짓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선 1978년 3월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애써 개간한 땅이 모두 장림공업단지 부지로 책정된 때문이다.

다행히 그동안 저축을 해둔 것이 적지 않아 지금의 하천부지 채소단지를 1978년 4월에 2천만원을 주고 1만평을 1980년에 1천5백만원을 주고 5천평 등 모두 1만5천평을 사들였다. 그는 이곳에 또 2천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독섬상추·얼갈이배추·마디호박·오이·당근 등을 재배하고, 노지엔 배추·대파·열무·무·시금치 등을 가꾸었다.

그가 경작하는 땅은 거의 쉴 새가 없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많을 땐 연간 7회, 나지(裸地)도 4회까지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력이 당해낼까 싶지만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땅심을 돌우어주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李씨의 농장에서선 화학비료를 거의 안쓰고 퇴비를 많이 쓴다. 1년 내내 모두 합쳐야 화학비료는 10a당 50kg 이하이고 퇴비는 4천5백kg 안팎이나 주는데 이 퇴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비가 아니다. 그가 1978년 이래 지금까지 즐겨 쓰는 퇴비는 양털찌꺼기에 육계분(짚+닭똥)을 섞은 것으로 1년 동안에 t당 5천원씩 하는 양털찌꺼기는 1천t 이상, t당 1만원씩 하는 육계분은 1백20t가량 사서 효소농법을 응용하여 완전 발효시켜 쓴다.

발효는 10g들이 효소 1봉지와 설탕 30g를 섞서 30도 가량 되는 물 2ℓ에 녹여 이 물을 양털찌꺼기 30kg에 뿌려 발효시킨 다음 발효된 양털찌꺼기를 발효되지 않는 양털찌꺼기에 1천대 1의 비율로 섞아 놓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완전 발효된 퇴비를 쓰면 지력이 증진될 뿐 아니라 병균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져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저의 경우 작목에 따라 아예 농약을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일반농가의 10%밖에 쓰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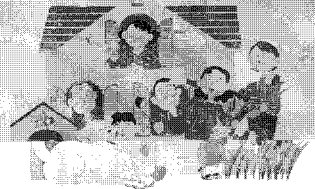
그의 이 같은 선진농법은 이웃 농가에도 널리 전파돼 삼락단지에서 생산된 농작물들은 농약을 적게 쓴 저공해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李永浩씨는 1976년부터 새마을지도자 하단동협

의회장을 맡기도 한 새마을일꾼이기도 하다.

새벽 4시엔 어김없이 기상하는 그는 KBS의 ‘농민의 시간’을 청취한 뒤 골목길을 청소하고 6시30분이면 아침식사를 끝내고 7시쯤이면 하단삼거리에 도착 9시까지 교통정리를 해주고 농장으로 간다. ㉟

4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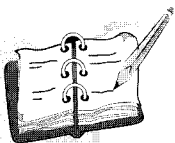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끈기있게 맥을 이어온 45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